

여고생의 분노 및 대인관계위치와 집단따돌림(괴롭힘)행위와의 관계

박 미 영* · 김 은 경**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청소년기는 다양한 인간관계를 습득해 나가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경험하는 인간관계의 특성은 각자의 인격형성 뿐 아니라 개인의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또래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우리 청소년들 사이에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위협하는 “집단 따돌림(괴롭힘)”현상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이 아닌 학교에서 보내고 있으나 학생들의 현실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숨막힐 듯한 긴장감과 경쟁의식 속에서 친구들이 자신의 동료가 아니라 비인간적인 경쟁상대로서의 인간 관계를 갖게 되는 것이 큰 문제이다. 아울러 개인의 정체감을 확립시켜 주는 바람직한 교육풍토의 결핍과 가치판단 기준의 혼란으로 인한 불안, 좌절감, 자존심의 상실 위협 등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협적이거나 해로운 것으로 지각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적대감이나 분노의 형태로 표출하게 된다(Novaco, 1979; 권혜진, 1994). 이때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타인이나 물건에 신체적, 언어적으로 표

현하는 방법으로 공격, 폭력 등을 행사하게 되며(Riley와 Treiber, 1989; 고영인, 1994; Bongard, al'Absi 및 Lovallo, 1998; Raikkonen, Matthews, Kuller, Reiber 및 Bunker, 1999) 또한 자신의 존재를 확인 받으려는 경향이 집단따돌림(괴롭힘)이라는 심각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특히, 소아청소년의 적응장애, 충동조절장애, 약물남용, 반항적 적대장애, 품행장애, 분리불안장애 같은 정신장애에 있어서도 분노 및 적대적 태도, 공격적 행동들에 대한 경험이 가장 흔한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학교와 사회에서의 청소년 폭력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예측인자로 분노와 적대감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영석과 조주연, 1999).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에 있어서 가해학생들은 대체로 지나치게 외향적이고 성취욕이 높으며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분노, 불안, 좌절 때문에 오는 자아의 연약함을 방어하기 위해서 약한 상대를 괴롭히게 된다고 한다(이규미, 문영춘 및 홍혜영, 1998; 원호택, 1991). 결국 남에게 괴롭힘을 가하는 청소년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반사회적이고 범죄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피해학생들은 두통, 복통,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거나 신경쇠약, 우울증 등의 심리적 장애증상과 대인기피증상을 보이고, 더

* 해천대학 간호과 부교수
** 해천대학 간호과 부교수

나아가서는 자신도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는 일에 가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한준상, 이춘화 및 임성택, 1999).

인간의 행동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나 내적욕구를 외형적으로 표출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간의 상호작용에 의거하여 결정되는 바, 건강한 인간관계 즉 또래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욕구, 성격특성, 가정환경, 학교와 또래집단 등의 영향변수를 고려하여 청소년들의 분노현상, 문제행동, 건강위해행위 및 비행의 원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권혜진, 1994; 김현숙, 1998; 김현설, 2000).

이에 덧붙여, 사회현상은 가시적으로 드러난 것보다 그 현상이 발생한 사회와 사회내의 구성원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현상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가해학생들은 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다른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김소영, 2000)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분노수준 뿐만 아니라 그 현상이 발생하고있는 학급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 즉 대인관계위치에 의한 영향도 예측해 볼 필요성이 제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특성분노, 상태분노 수준 및 학급 내 대인관계위치와 집단따돌림(괴롭힘)행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신체적 및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집단따돌림(괴롭힘)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간호중재 방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특성분노, 상태분노, 따돌림(괴롭힘)행위의 정도를 알아본다.
- 2) 대상자의 특성분노, 상태분노 수준과 따돌림(괴롭힘)행위와의 상관성을 알아본다.
- 3) 학급 내 대인관계위치에 따른 대상자들의 분노수준과 따돌림(괴롭힘)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한다.

2. 용어의 정의

대인관계위치 : 중심부 학생 ; 학급 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표현과 모든 일에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소속된 학급 안에서 급우들의 40%이상의 지지도를 확보한

학생을 의미한다.

주변부 학생 ; 그 외의 학급구성원을 의미한다.

집단따돌림(괴롭힘) : 두 명 이상이 집단을 이루어 특정인을 그가 소속해 있는 집단 속에서 소외 시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 또는 음해 하는 언어적, 신체적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김장수, 1999) 괴롭힘은 원인적인 행동이고 집단 따돌림은 괴롭힘 행동에 의해 나타나는 결과적인 현상을 말한다.

II. 이론적 배경

청소년기는 성인과는 달리 주변환경으로부터 통제할 수 없는 많은 사건에 종속되어 있으며, 전통적으로 이 시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불안정과 불균형의 심한 긴장이 일어나며, 연령에 따라 다른 경험과 관련된 높은 스트레스기간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사회는 학교교육의 대부분을 입시교육에 치중하여 과도한 경쟁을 조장하고 있어 입시경쟁의 부담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전은영과 이수연, 2001).

일반적으로 일상 생활과 관련하여 인지된 높은 스트레스는 높은 분노수준과 관련이 있어(Thomas 와 Williams, 1991) 분노는 스트레스에 대한 인간의 적응행위로 정상적인 반응으로 간주될 수 있다(Lazarus, Kranner 및 Folkman, 1980). 반면에 공격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난폭한 말싸움이나 행동으로 표출되기 쉽기 때문에 자신은 물론 타인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키기도 한다(김용섭, 1984).

Spielberger 등(1985)은 분노를 특성 분노와 상태 분노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성분노는 얼마나 자주 분노를 일으키는가를 보여 주는 개인의 성격 경향이며, 상태 분노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으로 자율신경계의 활성화 혹은 흥분을 수반하는 정서적 측면과 생리적 측면을 포함한 정서-생리적 현상을 말한다. 특성분노가 높은 사람은 상태분노를 더 강하게 하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으며(Porter, Stone 및 Schwartz, 1999), 특성분노와 분노증상, 인지된 스트레스간에 순상관이 있음(Thomas와 Williams, 1991)이 보고되었다.

오늘날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실은 일등 제일주의, 무한한 경쟁논리에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동료들과 부모 혹은 교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며 우리사회에서 부모나

교사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학습결과(성적), 학습을 통한 경쟁에서의 승리가능성 여부(대학입학)등 매우 제한적이다. 실제적으로 청소년들의 20~30%만이 부모로부터 인정받고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자신감 결핍에서 야기되는 적대감이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될 희생양 즉 집단따돌림(괴롭힘)의 대상자인 왕따(왕따돌림의 준말)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고하고 있다(오중숙, 1999).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부에서는 따돌림을 비롯한 청소년 폭력문제가 괴롭힘의 차원에서 연구되고 있다.

여기서 괴롭힘이란 '어떤 사람이나 집단이 다른 사람에 대해 힘을 행사하기 위한 말이나 행동을 취하는 것',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학대와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누군가의 별명을 부르는 것, 헐뜯거나 나서하는 것, 활동에서 그들을 내쫓는 것, 말을 걸지 않는 것, 위협, 불편하게 하거나 겁을 주는 것, 금품을 빼앗거나 손상시키는 것, 괴롭힘에 속하는 범주도 다양하다. 즉, 괴롭힘이란 피해자의 특성보다는 가해자의 의도나 행위에서 비롯되는 정의로 우리나라에서 따돌림이라 함은 심리적인 괴롭힘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이규미 등, 1998).

괴롭힘은 신체적인 공격과 심리적인 공격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우리가 흔히 학교 폭력으로 일컫고 있는 신체적 공격은 다시 집단적인 학교 폭력과 일대일의 학교 폭력으로 구분될 수 있다. 집단적인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 그 결과로 인하여 학교에서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어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일대일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해자는 그 집단에서 피해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제 3자들이 가해자에게 동조를 하게 되며, 결국 피해자는 집단 따돌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심리적인 공격은 언어적 공격을 포함하는 것으로 따돌림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의도적인 따돌림이라고 볼 수 있다(강진령과 유형근, 1999).

정혜경과 김경희(2000)는 한국청소년이 지각하는 집단따돌림에 관한 연구에서 Q-방법론을 통하여 5가지 유형으로 따돌림 상황이 목격된 경우 적극적 대처형의 해결형, 따돌림을 받는 아이에게 원인제공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관망형, 따돌림을 학교생활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고 있고 적극적 대처보다는 상황회피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갈등형, 따돌림의 대상은 약하고 힘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인식하고 방관자적 태도로 암묵적인 동조를

하고 있는 동조형, 따돌림 현상 자체에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가해자나 또는 자신과의 관계가 원만치 못한 아이라 할지라도 이에 대한 보복적 방법으로서의 따돌림은 인정하지 않는 부정형으로 집단따돌림에 관한 학생들의 주관성을 유형화하고 있다.

Miller, Ferguson 및 Byrne(2000)은 학생들의 비행에 관한 원인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교사들의 공정성 부족, 취약성 있는 학생 자질, 유해한 가족환경, 학급 내 분위기의 경직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집단 따돌림(괴롭힘)의 가해학생들은 가족 구성원들간의 갈등과정에서 희생양이 되어 본 경험이 있거나 약자를 괴롭히는 것을 접해 본 경험으로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타인을 괴롭히는 것을 학습하게 된 경우가 많으며(원호택, 1991) 또래집단 안에서 영향력이 있어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을 중심으로 멍치게 하려는 권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즉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일 경우 위기를 잘 모면하며, 이야기를 잘해 친구들을 주위에 몰리게 하는 힘이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성향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되고있다(강진령과 유형근, 1999).

김소영(2000)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집단따돌림" 현상에 관한 연구에서 여학생 경우 14개의 항목 가운데 '모든 일에 나선다'는 항목이 61.1%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실제로 가해학생들이 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있으며 다른 학생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집단따돌림(괴롭힘)의 중심현상인 심리적, 신체적 공격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들의 분노성향 뿐만 아니라 그 현상이 발생하고있는 학급구성원 사이의 상호작용 즉 대인관계위치에 의한 영향도 예측해 볼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여고생의 분노 및 학급 내 대인관계 위치와 집단따돌림(괴롭힘)행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선행연구논문 등을 토대로, 발달단계상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연령, 고급별로는 중학교에서 발생빈도는 가장 높으나(김소영, 2000), 고등학생이 초, 중학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집단따돌림(괴롭힘)에 대한 피해를 더 심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정영배, 1999), 남학생보다 여학생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한준상 등, 1999) 연령별 청소년 문제행동의 빈도가 고등학교시기에 가장 높게(김현숙, 1998)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학생과 가장 연계성이 있는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2001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대전시에 위치하고 있는 ○○여자고등학교에서 연구주제에 대한 실제상황에서의 검증을 위하여 담임교사들의 사전동의를 구한 뒤 1학년 총12학급 485명 중 학급담임소견과 학급 내에 따돌림(괴롭힘)현상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없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간단한 질문을 사용하여 70%이상이 “있다”고 지각하고 있는 3학급 116명(이하 “지각된 집단따돌림 있는 반”으로 칭함)과, 비교 군으로 담임소견 및 학급 구성원의 70% 이상이 “없다”고 지각하고 있는 3학급 117명(이하 “지각된 집단따돌림 없는 반”)으로 총 23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대상자의 특성분노, 상태분노, 따돌림(괴롭힘)행위 및 학급 내에서의 대인관계위치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익명으로, 자기보고식으로 작성케 하여 봉투에 미리 부착시킨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밀봉하게 한 후 봉투 겉면에 대상자의 이름을 필히 쓰도록 하였다.

3. 연구도구

1) 대인관계위치 파악 : 학급학생들의 대인관계위치 즉 중심부, 주변부의 위치를 알기 위하여 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학급 내에서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학생이름을 모두 기입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속 된 학급 안에서 급우들의 40%이상의 지지도를 확보 한 학생을 중심부 학생으로, 그 외의 학생들은 주변부 학생으로 포함하였음을 의미한다.

2) 특성분노 측정도구 : 분노는 미미한 짜증부터 강한 격분이나 격노까지 여러 강도를 가지는 정서상태로

서, 특성 분노는 얼마나 자주 분노를 일으키는가를 보여 주는 개인의 분노 경향이다. 본 연구에서는 Spielberger (1988)의 Trait Anger Scale(TAS)을 전경구 (1995)가 번안한 11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특성분노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83이었다.

3) 상태분노 측정도구 : Spielberger(1988)의 분노경험척도를 현재 국내 표준화 단계에 있는 전경구 (1995)의 번안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에서는 짜증난 상태, 성난 상태 및 격노한 상태 등을 재는 12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상태분노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92이었다.

4) 따돌림(괴롭힘)행위 측정도구 : 김소영(2000)의 도구를 기초로 수정하여 따돌림(괴롭힘)행위를 재는 14문항으로 “전혀 하지 않는다”를 1점, “항상 한다”를 4점으로 점수가 높을 수록 따돌림(괴롭힘)행위를 많이 한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0.73이었다.

3.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들의 특성분노, 상태분노, 따돌림(괴롭힘)행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따돌림(괴롭힘)행위와 특성분노, 상태분노간의 상관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학급 내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반과 없다고 지각하는 반의 중심부, 주변부 학생의 특성분노, 상태분노 및 따돌림(괴롭힘)행위에 대한 차이는 t-test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분노수준 및 따돌림(괴롭힘)행위 정도

대상자의 특성분노, 상태분노, 따돌림(괴롭힘)행위 정도에 관한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의 분노수준 및 따돌림(괴롭힘) 행위 정도

	평균	표준편차	최소점	최대점
특성분노	25.52	6.06	11	44
상태분노	22.26	8.27	12	48
따돌림행위	17.23	3.07	14	29

2. 대상자의 분노수준과 따돌림(괴롭힘)행위와의 상관성

대상자의 분노수준과 따돌림(괴롭힘)행위와의 상관성에 관한 분석 결과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특성분노와 상태분노 ($r=0.44$ $p=.000$), 특성분노와 따돌림(괴롭힘)행위($r=0.36$ $p=.000$), 상태분노와 따돌림(괴롭힘)행위($r=0.28$ $p=.000$)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을 보였다.

<표 2> 대상자의 분노수준과 따돌림(괴롭힘)행위와의 상관성

	특성분노	상태분노
상태분노	0.44***	
따돌림행위	0.36***	0.28***

* $P<0.05$ ** $P<0.01$ *** $P<0.001$

3. 학급 내 집단따돌림현상 지각 유무에 따른 분노수준과 따돌림행위 비교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116명과 없다고 지각하는 117명의 특성분노, 상태분노 및 따돌림(괴롭힘)행위를 비교 해 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학급 내 집단따돌림(괴롭힘)의 지각 유무에 따른

<표 3> 집단따돌림현상 지각 유무에 따른 대상자의 분노수준과 따돌림행위 비교

지각된 집단따돌림	있는반(n=116)		없는반(n=117)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특성분노	26.30	6.44	24.61	5.51	2.008	.046*
상태분노	23.14	8.50	21.37	7.98	1.626	.105
따돌림행위	18.07	3.52	16.40	2.27	4.301	.000***

* $P<0.05$ ** $P<0.01$ *** $P<0.001$

<표 4> 중심부 학생의 분노수준 및 따돌림 행위 비교

지각된 집단따돌림	있는반 중심부(n=41)		없는반 중심부(n=36)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특성분노	27.73	6.36	24.61	5.59	2.273	.026*
상태분노	25.44	9.19	21.33	7.76	1.902	.061
따돌림행위	19.46	4.43	16.81	2.51	3.203	.002**

* $P<0.05$ ** $P<0.01$

분노수준과 따돌림(괴롭힘)행위에 대한 차이는 “지각된 집단따돌림(괴롭힘) 있는 반”에서 특성분노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t=2.008$, $p=.046$), 따돌림(괴롭힘)행위 빈도도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4.301$, $p=.000$). 그러나 상태분노에서는 학급 내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의 지각 유무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4. 학급 내 대인관계위치에 따른 대상자의 분노수준 및 따돌림행위 비교

1) 중심부 학생의 분노수준 및 따돌림 행위 비교

학급 내 대인관계위치 파악을 위하여 학급 안에서 앞장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추천된 학생으로서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3학년 116명 중 41명, 없다고 지각하는 3학년 117명 중 36명의 특성분노, 상태분노 수준과 따돌림(괴롭힘)행위를 비교 해 본 결과 “지각된 집단따돌림(괴롭힘) 있는 반” 중심부 학생들의 특성분노($t=2.273$, $p=.026$) 및 따돌림(괴롭힘)행위($t=3.203$, $p=.002$)가 유의하게 높았다 <표 4>.

2) 주변부 학생의 분노수준 및 따돌림 행위 비교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반의 주변부 학생 75명, 없다고 지각하는 반의 주변부 학생 81명의 특성분노, 상태분노수준과 따돌림(괴롭힘)행위를 비교해 본 결과 특성분노 및 상태분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따돌림(괴롭힘)행위에서는 “지각된 집단따돌림(괴롭힘) 있는 반” 주변부 학생들이 “없는 반” 주변부 학생에 비해 따돌림(괴롭힘)행위가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t=2.861, p=.005$)<표 5>.

V. 논 의

3) 집단따돌림현상을 지각하는 반의 중심부, 주변부 학생의 비교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3학년 116명 중 중심부 학생 41명과 주변부 학생 75명의 분노수준 및 따돌림(괴롭힘)행위에 관한 비교분석 결과는 특성분노 및 상태분노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따돌림(괴롭힘)행위는 중심부학생들이 많이 한 것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3.286, p=.001$)<표 6>.

4) 집단따돌림현상을 지각하는 반의 중심부 학생의 분노와 따돌림행위 상관성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반의 중심부학생 41명의 특성분노, 상태분노 수준과 따돌림(괴롭힘)행위에 관한 관련성을 분석해 본 결과 특성분노와 상태분노($r=0.53, P=.000$), 특성분노와 따돌림(괴롭힘)행위($r=0.39, p=.011$), 상태분노와 따돌림(괴롭힘)행위($r=0.35, p=.02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을 나타내었다<표 7>.

최근 학교와 사회에서의 청소년 폭력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의 공격적 행동에 대한 예측인자로 분노와 적대감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이영식과 조주연, 1999).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여자고등학교 1학년 233명을 대상으로 여고생들의 분노수준(특성분노, 상태분노) 및 대인관계위치와 따돌림(괴롭힘)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오늘날 중요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로 많은 청소년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집단따돌림(괴롭힘)에 가세하고 있는 것은 학업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 등으로 왜곡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으며 상대의 괴로움에 대한 공감능력의 부족에서도 기인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이규미 등, 1998).

본 연구에서도 대상자의 특성분노 및 상태분노 수준은 따돌림(괴롭힘)행위와 유의한 순상관을 나타내고 있어 분노수준이 높을수록 괴롭힘 행위를 많이 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분노와 따돌림(괴롭힘)행위와의 관련성을 실제상황에서 검증하기 위해 시도한, 실

<표 5> 주변부 학생의 분노수준 및 따돌림행위 비교

지각된 집단따돌림	있는반 주변부(n=75)		없는반 주변부(n=81)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특성분노	25.52	6.40	24.72	5.51	.809	.420
상태분노	22.11	7.97	21.39	8.18	.548	.584
따돌림행위	17.31	2.64	16.20	2.13	2.861	.005**

* P<0.05 ** P<0.01

<표 6> 지각된 집단따돌림(괴롭힘) 있는반 중심부, 주변부 학생의 비교

지각된 집단따돌림	있는반 중심부(n=41)		주변부(n=75)		t	p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특성분노	27.73	6.36	25.52	6.40	1.784	.077
상태분노	25.02	9.19	22.11	7.97	1.785	.077
따돌림행위	19.46	4.43	17.31	2.64	3.286	.001**

* P<0.05 ** P<0.01

<표 7> 지각된 집단따돌림 있는 반의 중심부 학생의 분노와 따돌림행위의 상관성

	특성분노	상태분노
상태분노	0.53***	
따돌림행위	0.39*	0.35*

* P<0.05 ** P<0.01 *** P<0.001

체적으로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반과 없다고 지각하는 반과의 비교에서도 “지각된 집단 따돌림(괴롭힘) 현상이 있는 반” 대상자의 특성분노 수준 및 따돌림(괴롭힘)행위가 높았다.

이는 권혜진(1994)의 여학생의 분노현상인 “치밀어 오름”이 강하고, 상대방의 관계가 친하며, 상대방이 나이가 적고 권위가 약한 경우 “치밀어 오름”은 파괴적 행동으로 직접적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학년 내 대인관계위치에 따른 대상자의 분노수준과 따돌림 행위와의 관련성은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반의 중심부 학생들이 주변부 학생에 비하여 따돌림(괴롭힘)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단따돌림 현상이 없다고 지각하는 반의 중심부 학생보다 특성분노 수준 및 따돌림(괴롭힘)행위가 높았다. 또한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반의 중심부 학생들의 분노수준과 따돌림(괴롭힘)행위의 상관성은 특성분노 및 상태분노 수준이 높을수록 따돌림(괴롭힘)행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급 내에서 적극적이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학생들의 분노수준이 높을수록 괴롭힘 행위가 많이 일어 날 수 있어 집단따돌림 현상의 유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이는 여학생의 경우 수줍음이 적을수록 비행의 정도가 높았고(김현숙, 1998) 따돌림(괴롭힘)을 가하는 학생은 또래 집단 안에서 영향력이 있어 친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래 집단 형성이 자신을 중심으로 뭉치게 하려는 권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 결과(김종기, 1998)와 일치하였다.

특히 학급 내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의 지각 유무에 따른 주변부 학생들의 특성분노, 상태분노수준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따돌림(괴롭힘)행위는 집단따돌림(괴롭힘) 현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반의 주변부 학생들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주변부 학생들의 경우에도 일정 정도의 따돌림을 당할 위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따돌림(괴롭힘)행위에 가세하거나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방조하게되는데 이런 이유가 따돌림당하는 아이들을 도와주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 것이다. 이는 정혜경과 김경희(2000)의 학교 청소년들의 집단따돌림에 관한 지각에서 해결형, 관망형, 갈등형, 동조형, 부정형의 5가지 유형 중 관망형, 갈등형, 동조형에 속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대상자의 특성 분노 및 상태

분노 수준이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의 유발에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학급 내 대인관계 위치상 중심부에 위치하는 학생들의 특성분노수준이 영향요인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므로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간호중재방안을 위해서는 분노의 긍정적 해결 방안도 중요하지만 학급 내 대인관계망의 파악과 아울러 주도적인 학생들의 분노성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여고생들의 분노수준과 학급 내 대인관계위치를 파악하고 따돌림(괴롭힘)행위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및 정신적,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에 대한 청소년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간호중재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대전시 00여자 고등학교 1학년 233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자료수집은 2001년 6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하였으며 학급 내 “집단따돌림(괴롭힘)”이 있다고 지각하는 3학급(116명)과, “집단따돌림(괴롭힘)”이 없다고 지각하는 3학급(117명)의 총 233명을 선정하여 대상자들의 분노수준(전경구, 1995)과 학급 내 대인관계위치, 따돌림(괴롭힘)행위(김소영, 2000)를 알아보기 위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분석 방법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학년 내 대인관계위치에 따른 학생들의 특성분노, 상태분노, 따돌림(괴롭힘)행위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따돌림(괴롭힘)행위와 특성분노, 상태분노 수준간의 상관성은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집단 따돌림(괴롭힘)현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반과 없다고 지각하는 반의 중심부, 주변부 학생들의 특성분노, 상태분노 수준 및 따돌림(괴롭힘)행위에 대한 차이는 t-test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상자의 특성분노, 상태분노수준과 따돌림(괴롭힘)행위와의 상관성은 특성분노와 상태분노($r=0.44$), 특성분노와 따돌림(괴롭힘)행위($r=0.36$), 상태분노와 따돌림(괴롭힘)행위($r=0.28$)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을 보였다($p=.000$).

2)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반의 대상자가 없다고 지각하는 반의 대상자에 비해 특성분노($t=2.008$, $p=.046$), 따돌림(괴롭힘)행위($t=4.301$,

p=.000)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3) 학급 내 대인관계위치에서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반의 중심부 학생들이 없다고 지각하는 반의 중심부 학생들에 비해 특성분노($t=2.273$, $p=.026$) 및 따돌림(괴롭힘)행위($t=3.203$, $p=.002$)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4)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반의 중심부 학생들이 같은반 주변부 학생들에 비해 따돌림(괴롭힘)행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3.286$, $p=.001$).

5)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반의 주변부 학생들이 없다고 지각하는 반의 주변부 학생들에 비해 따돌림(괴롭힘)행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861$, $p=.005$).

6)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이 있다고 지각하는 반의 중심부 학생들의 특성분노와 상태분노($r=0.53$ $P=.000$), 특성분노와 따돌림(괴롭힘)행위($r=0.39$ $p=.011$), 상태분노와 따돌림(괴롭힘)행위($r=0.35$ $p=.02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순상관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여고생들의 특성분노 및 상태분노 수준이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의 유발에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학급 내 대인관계 위치상 중심부에 위치하는 학생들의 특성분노 수준이 영향요인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1) 학급 내 집단따돌림(괴롭힘)현상의 감소 및 방지를 위해 요청되는 개인 전략으로서 개인의 분노성향을 파악하고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주장훈련과 분노 조절프로그램의 개발과 활용이 요구된다.

2) 소집단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분석법인 소시오메트리(sociometry)를 활용하여 정확한 학급 내 대인관계위치의 파악과 아울러 분노성향과 따돌림행위와의 관계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강진령, 유형근 공저 (1999). *집단괴롭힘*. 학지사.
고영인 (1994). *대학생의 분노표현양식과 우울 및 공격성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권혜진 (1994). *청소년 분노현상의 근거이론적 접근*.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김소영 (2000).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집단따돌림 현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용섭 (1984). 분노에 대한 연구. *고신대학논문집*, 제 12집, 71-90.
김종기 (1998).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따돌림의 특성과 제언.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개원 1주년 기념심포지움 자료집*, 41-46.
김장수 (1999). 마음이 열리면 왕따는 없다. *교육 바로 세우기 2차 교육토론회 자료집*, 희망교육연대.
김현숙 (1998). *청소년의 건강행위와 비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모형 구축*.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김현실 (2000). 폭력매체에 의한 비행행동의 구조모형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0(1), 148-159.
안근석 (1991). *심리학 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오종숙 (1999). *청소년의 집단따돌림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원호택 (1991). *청소년 범죄행동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규미, 문영춘, 홍혜영 (1998). 상담사례를 통해서 본 "왕따" 현상. *서울특별시 청소년종합상담실 개원 1주년 기념심포지움 자료집* 15-40.
이영식, 조주연 (1999). 한국판 청소년 상태-특성 분노표현 척도의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38(4), 794-804.
전경구 (1995). 분노척도의 개발연구. 95년 대구 경북심리학회 학술발표 논문초록, 19-32.
전은영, 이수연 (2001). 청소년의 흡연과 스트레스, 가족기능 및 활력상태에 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회지*, 7(1), 143-156.
정영배 (1999). 왕따에 대한 실태조사. *교육 바로세우기 2차 교육토론회 자료집*, 희망교육연대.
정혜경, 김경희 (2000). 학교청소년이 지각하는 집단 따돌림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30(1), 137-147.
한준상, 이춘화, 임성택 (1999). *학교내 비폭력문화 프로그램개발*. 한국청소년 개발원.
Bongard, S., al'Absi, M., Lovallo, W. R. (1998). Interactive effects of trait hostility and anger expression on cardiovascular reactivity in young man.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physiology*, 28(2), 181-191.
Lazarus, R. S., Kranner, A. D., Folkman, S. (1980). An ethological assessment of emotion. *Theory, research and experience*,

- J, 198-20, New York, Academic Press.
- Miller, A. Ferguson, E. Byrne, I. (2000). Pupil's causal attributions for difficult classroom behaviour.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70(1), 85-96.
- Novaco, R. W. (1979). The cognitive regulation of anger and stress. In Kendall, P.C. & Hollon, S.D(Eds), *Cognitive-behavioral interventions : Theory, research and procedures*, 241-285, New York, Academic Press.
- Porter, L. S., Stone, A. A., Schwartz, J. E. (1999). Anger expression and ambulatory blood pressure : a comparison of state and trait measures. *Psychosomatic Medicine*, 61(4), 454-463.
- Raikkonen, K., Matthews, K. A., Kuller, L. H., Reiber, C., Bunker, C. H. (1999). Anger, hostility, and visceral adipose tissue in healthy postmenopausal women. *Metabolism*, 48(9), 1146-1151.
- Riley, W. T., Treiber, F. A. (1989). The validity of multidimensional self-report anger and hostility measures. *Journal Clinical Psychology*, 45(3), 397-404.
- Thomas, S. P., Williams, R. L. (1991). Perceived stress, trait anger, modes of anger expression, and Health status of college men and women. *Nursing Research*, 40(5), 303-308.
- Spielberger, C. D. (1988). *Professional manual for the State - 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Tempa, FL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 Spielberger, C. D., Johnson E. H., Russel S. F., Crane R. J. Jacobs G. A., & Worden, T. J. (1985).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n anger expression scale*. In Chesney, M.A. & .Rosenman, R.H(Eds). *Anger and hostility in cardiovascular and behavioral*

disorder, Washington, D.C., Hemisphere Publishing, 5-30.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Anger, Personal Relationship Position and Bullying Behaviors in High School Girls

Park, Mi Young* · Kim, Eun Kyung**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igh school-girls' trait-state anger, personal relationship position in class and bullying behaviors, and to develop the nursing intervention to prevent the damages of young people's mind according to the bullying conditions.

Method : The objects of this study chose from the girls high schools in "D" city and 233 students answered the question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June. 11 to 20. 2001. The major instruments used for this study were Trait Anger-State Anger Scale(Chon, 1995) to inquire the level of anger and Bullying Behaviors Scale(Kim, 2000) and personal relationship position in class. Statistical analysis for the research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correlational analysis, and for the analysis of data the SPSS program was used.

Result :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 1) Total participant's trait anger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tate anger and bullying behaviors. Also, state anger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bullying behaviors.
- 2) The participants in the classes with

* Hyecheon College
** Hyecheon College

perceived bullying phenomenon showed higher score of trait anger and bullying behaviors than those in the classes with non-perceived bullying phenomenon.

3) According to personal relationship position of the class, central group of the classes with perceived bullying phenomenon showed higher score of trait anger and bullying behaviors than those of the classes with non-perceived bullying phenomenon.

4) Also, central group of the classes with perceived bullying phenomenon showed higher score of bullying behaviors than peripheral group in the same classes.

5) The peripheral group of the classes with perceived bullying phenomenon showed higher score of bullying behaviors than those of the classes with non-perceived bullying phenomenon.

6) Central group's trait anger of the classes with perceived bullying phenomenon had a positive correlation to state anger and bullying behaviors. Also, central group's state anger was positively correlated to bullying behaviors.

conclusion : In conclusion, the level of trait anger and state anger in high school girls affected to occur the bullying behaviors in students and especially, the trait anger in central group students was primary factor for the effect.

Key words : high school-girls' anger, personal relationship position, bullying behaviors